

K-코로나 백신 눈앞... SK바사, 투약군 99%서 면역형성

후보물질 'GBP510' 임상 1·2상서 65세 이상 포함에도 '우수한 면역' 3상 순항... 내년 상반기 상용화 기대



강제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고려대 구로병원 등 14개 기관에서 건강한 성인 328명을 대상으로 GBP510을 투여하는 임상 1·2상을 진행한 결과 면역증강제를 함께 투여한 투약군 99% 이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

임상은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시점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청 패널과 중화항체 유도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체 그룹

의 유사바이러스 기반 중화항체(PBN A)에선 약 6배로 높게 나타났고, 일부 그룹을 대상으로 플라크역제시험법(P-RNT) 분석을 진행했을 때도 약 3.6배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ELISA)를 통한 결과에서도 결합 항체가 완치자 혈청 패널 대비 약 13.3배로 높았다. 일반적으로 면역 반응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을 포함했음에도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비교해 유사하거나 우수한 면역원성을 보여줬다. 안전성 측면에선 GBP510 투약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 반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임상 3상도 순항 중이어서 내년 상반기 국산 백신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함께 유럽, 동남아 등에서 다국가 임상3상 진행을 위한 국가별 승인 과정을 진행 중으로 이미 임상에 진입한 베트남에 이어 빠른 면 이달 내 모든 대상 국가에서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지난 8월부터 고려대 구로병원 등 14개 기관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계획보다 5배 이상 많은 약 500여명에 대한 투약이 마무리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3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GBP510에 대한 국내 보건당국의 신속 허가를 받고 WHO의 PQ(사전적격성평가) 인증과 해외 국가별 긴급사용허가도 획득한다는 목표다.

정부도 최근 내년 상반기까지 제1호 국산 코로나19 백신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3상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구매, 허가·승인 기간 단축 등 집중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법정부지원위원회,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국내 보건당국과 CEPI, 게이트재단, IVI, GSK 등 글로벌 기구 및 기업들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임상 1·2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임상3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르게 GBP510 개발을 완료해 팬데믹 극복과 인류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위드 코로나에도 기업 90% "내년도 투자계획 못 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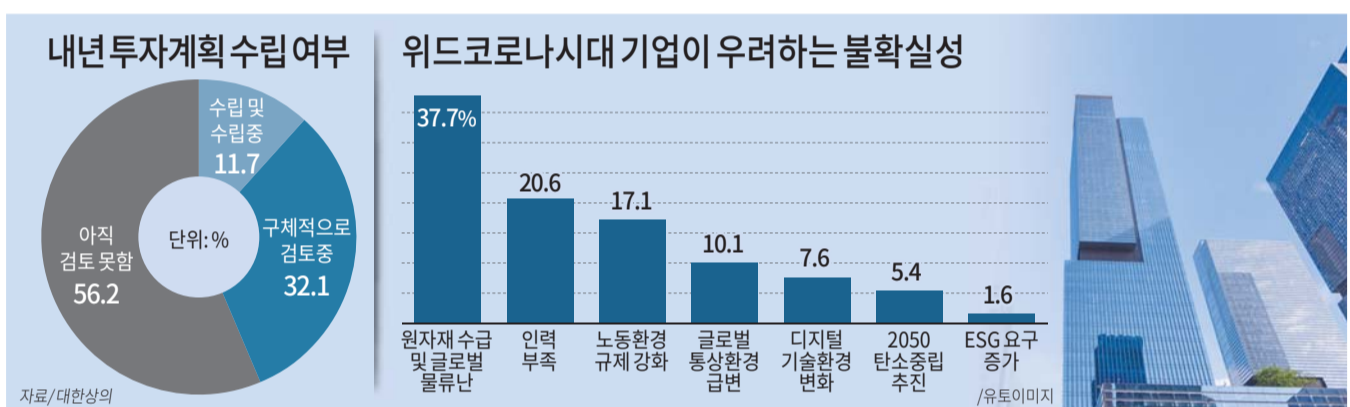
대한상의 '기업환경 전망' 조사 투자계획 수립·수립중 11.7% 불과 68% "불확실성 지속·확대될 것"

기업들이 '위드 코로나'에도 여전히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316사에게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업환경 전망과 대응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 대부분은 여전히 내년 투자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우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미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11.7%에 불과했다. 검토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2.1%, 검토조차 못했다는 기업이 56.2%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문



제라고 봤다. 불확실성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될지에 대해 68%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것'이라고 답한 것.

기업들은 불확실성 우려로 경기도나 빠르게 예상했다. 최근의 긍정적 흐름 지속 기간이 '3개월 이내'라는 답변이 12%, '내년 상반기'가 29.1%였다. '3년

이상'은 18.3%에 머물렀다. 불확실성 요소로는 '원자재 수급 애로 및 글로벌 물류난'이 37.7%로 가장 많았다. 인력부족도 20.6%, '노동·환경 등 규제환경 지속'도 17.1%로 적지 않았다.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10.1%),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 (7.6%), '2050 탄소중립 추진'

(5.4%), 'ESG에 대한 요구 증가' (1.6%) 등도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술과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늘어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제품 가격이나

경쟁력은 물론 기업의 미래 운명까지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투자 중요성은 여전히 높았다. 위드 코로나에 필요한 과제로 '적극적인 R&D와 투자'가 32.3%, '사업구조 재편'이 15.8%에 달했다.

대기업 임원 A씨는 "디지털·친환경 전환,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최근의 불확실성 요인은 단기적인 변수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는 상수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 시장을 관망하고 기다리기 보다는 불확실성 지속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과제로는 '물가 안정 민원자재 수급난 해소'가 31%로 가장 많았다. '경기 활성화' (25%)와 '기업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23.1%)도 뒤를 이었다. '인력수급 원활화' (9.2%), '규제 개선' (7.6%), '통상 불확실성 해소' (4.1%)도 빠지지 않았다.

/김재용 기자 juk@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 3만여개 인기상품 +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러시아 등 제3국서 공급해도 1~2달 공백

>> 1면 '요소수 품귀'서 계속

여당은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특사단 파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효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요소수 부족이 원인인 만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다.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요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긴 하지만, 실제 물량을 받기까지 2~3달을 기다려야 해 1~2달 공백이 불가피하다.

산업용 요소수를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용 요소수가 차량용 요소수에 비해 품질이 낮아서 바로 사용할 수 없고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데다가, 그나마도 재고가 거의 없어서다. 물류를 움직이는 대신 공장을 멈춰둔다는 발상에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단 업계에서는 뒤늦게나마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겠다는 정부 방침에 작은 기대를 보이고는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청와대 차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데 이어 7일에는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여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사재기' 단속과 함께 불법 자동차 단속을 연기하면서 요소수를 쓰지 않게 하는 불법 개조를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모자라다는 평가다. 사재기가 의미 없을만큼 물량 부족이 심각한데다가, 불법 개조 비용도 200만원에 달하는 탓.

정부 책임론도 커진다. 중국과 호주가 석탄으로 분쟁을 일으킬 당시부터 요소수 부족이 우려됐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후에 내놓은 대책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측은 지난달 21일에서야 내용을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에서조차 요소수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 juk@